

EU, 유전자변형 작물과 종자 허용치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김 정 섭*

EU 집행위원회 산하 ‘연합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는 지난 2월 24일에 유전자 변형 작물과 종자의 허용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유럽의 농업인들이 수확한 농작물 중에 ‘우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물질의 양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EU 역내에서 향후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 입안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옥수수, 사탕무, 면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또한 유전자 변형 종자 허용치를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어느 수준에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품목과 유전자 변형 품목을 함께 재배해도 괜찮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발성’이란 현재의 영농활동 하에서 비의도적이면서도 회피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한다. 유전자 변형 물질과 그로부터 파생된 상품에 대한 이력추적과 표시에 관한 EU의 현행 법규정은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식품이나 사료 중 유전자 변형 물질의 우발적 함유량을 0.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를 토대로 농업 부문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과 일반 작물의 공존을 허용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10-7339-2546

이번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물 생산에 있어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량을 0.9%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옥수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옥수수는 특히 인근 지역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풍속, 재배지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유럽에서 생산되는 일반 종자 안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우발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양은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2003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일반 작물 또는 유기농 작물이 유전자 변형 작물과 효과적인 수준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이후로 많은 회원국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의결했다. EU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 전망이다.

자료: EU Commission